

2021학년도 3월 1일자 공모교장



자기소개서

소속	○○○
직위	○○○
성명	○○○

자기소개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	-----

1 학생에서 교사로 성장하며 느꼈던 교육에 대한 생각들

● 나를 꿈꾸게 만든 이들은 친구들이다.

저는 고성과 비슷한 규모의 읍 소재지 중학교를 거쳐 마산연합적용지역 제1회로 고등학교 시절을 마산에서 보내었습니다. 고교 동창들과 만나면 졸업한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학창시절 이야기로 시작하여 학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대화에서 느낀 점은 다양한 꿈들은 친구들로 인해 꾸게 되었고, 최초의 꿈을 이룬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명문대 진학만을 위해 다그쳤던 기억이 전부이고 **진로나 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에 몸담으며 느꼈던 진리에 가까운 사실은 **학생들에게 모든 방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들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친구**라는 것입니다. 생활태도, 학업, 진로 선택 등 대부분의 일들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는 **또래 관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아이들끼리 즐겁게 어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 교육에는 늘 갈등이 있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배려, 협력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마산내서여고에서 1학년 부장을 거쳐서 창원으로 전보, 창원명곡고로 발령 받아 1학년 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개교 5년의 신설학교라 교육여건이 좋지 않았고 진학 성적도 지역의 타 학교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어 불만이 있던 학부모들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과 열악한 환경을 본 후 입학식장에서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학부모들 대상 긴급 간담회를 개최, 불신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고 갈등만 심화되니 서로 믿고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즉시 운영하였습니다.

「영재학급 운영」, 「소수정예 수준별 방과후 수업」, 「방과후 수업 교사 선택제」, 「12시 심야 면학실(40명 수용)운영」, 「주말 자율학습반 운영」, 「과목별 심화 R&E 동아리 운영」, 「심층논술 대비반」, 「수학·과학 경시대회반 운영」, 「아침 독서 및 영어듣기 프로그램 운영」 등과 더 나아가 과목별 최상위권 3~4명에게는 과목별 대학교재를 구입 배부 후 수시로 읽어보고 연구케 하였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매우 좋아하였고 만족하였지만 교사들은 반발하였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말아야하는 자율학습 지도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기에는 무리니까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과후 외부 강사 초빙, 심야·주말 자율학습 학부모 지도 협조, 대학교 연계, 외부 프로그램 연계, 부진아 지도 가능한 학부모 협조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설득하고 협력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진학이 10명 이내였던 학교가 개교이래 처음으로 서울대 1명, 연세대 치대 등 2명, 고대 2명 등 서울권 소재 대학만 40여 명 가까이 진학하여 지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 **학교 발전의 핵심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나름 새로운 교육을 해보겠다고 대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연수도 받았었지만 어느 날 뒤돌아 보니 학창시절의 선생님들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우연히 접한 교육이 남한산 초등학교의 교육입니다. 2000년 전교생 20여명 정도로 폐교 직전, 학교의 뜻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시작으로 「현장체험중심 블록수업」,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배움과 나눔의 삶 교육」, 「틀을 깨고 다시 짜는 교육과정」 등의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실천, 지금은 학생수가 150여명에 이르고 누구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학교로 변모하였습니다.

- 새로운 것을 보태기보다 안 좋은 것들을 버리거나 바로잡는 일
- 교사 자치, 학부모 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학교를 만들기, 균형 찾고 유지하기¹⁾

남한산 초등학교의 다양한 노력 중 가장 핵심은 「**목표를 뚜렷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좋은 관리자나 능력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민과 노력, 이를 통한 뚜렷한 목표의 설정과 공유이다.**’

● **영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마산교육청영재교육원 등 영재 강사 11년)**

2001년 마산교육청에서 경남의 첫 영재교육원이 개설되고 강사 의뢰가 왔었습니다.

좋은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교육을 접해 볼 욕심에 선뜻 응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직무연수」 「영재교육 심화연수」, 한국영재학교주관 「러시아 영재 해외직무연수」 등을 이수하였으며 경남 대학교 영재원 출강도 하였습니다. 이 후 마산교육청 영재교육원이 경남의 모델로 자리 잡도록 9년간 헌신하며 경상남도 영재교육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었고, 일본,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 교육 탐방과 연수 등으로 외국의 다양한 교육을 접하며 견문을 넓혀, 누구보다 앞서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자부합니다.

선발된 학생들 중 영재로 판별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프로젝트형 수업」 「현장체험 중심학습」 「관찰 평가」 「심층면접 평가」 「협력 학습」 등을 거치며 많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산, 과학고, 한국영재학교 등을 거쳐 카이스트 등에 진학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현재 교육전반에서 배움중심수업 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다. (진산학생교육원 파견, 대안교육법관련 법학 박사학위 취득)**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나태주-

진산교육원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고위기 중학생들 대상 기숙형 위탁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 아이들의 일탈은 교단생활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이 그렇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이 사회와 어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올바른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배움을 통해 쉽게 무너진다.」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배움을 제공한 사회와 어른들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돌봄(관용)」 「경청과 공감(소통)」 「존중과 배려(사랑)」 「희생과 봉사(나눔)」

그저 좋은 단어들의 나열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진정으로 실천하면 통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년간 대안교육 연구에 전념, 「대안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 [출처] [문학동네] 남한산초등학교 이야기|작성자 날아라

(1) 교사(Teacher)보다는 교육자(Educator)가 되고 싶었던 교단생활

중학교 시절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제 꿈은 문학가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거치며 막연하게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부친의 강요가 싫어 이과를 선택, 전자공학을 꿈꾸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교단에 선 이후 수학교사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경험을 하였고, 이런 경험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진로진학 지도에 많이 활용, 대학입시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업무면에서는 울산의 여중학교에서 학생기획으로 시작, 창원인근의 인문계고만 25년을 근무하면서 주요부서의 기획과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꿈나르미 학교’, ‘사이버 교육 시범학교’,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 ‘교육과정 시범학교’ 등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담임도 20년 이상하였습니다. 외부교육활동으로도 영재교육, 발명교육, 대안교육, 도교육청 자료 개발 위원, 공모 심사위원, 도교육청 영재교육 평가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학생지도 부문에서는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전국대회 입상, 전국 발명경진대회 입상, 실용신안 등록까지 수많은 실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이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자, 미래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교육을 실천하고 전하는 관리자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고성중앙고를 미래혁신 교육의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다 함께! 개성 있게!(Together But Unique!), 미래교육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그들처럼 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칼릴 지브란의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 중에서 발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할 지도 모르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많은 일자리들과 새로운 기술이 인간에게 편익제공이 아니라 공포가 될 수도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사람’에 더 집중해야하는 시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화하는 2022 대학입시에 빠르게 대응하는 진로진학 체제를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한 치 앞의 성과보다는 긴 숨으로 지켜보고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인생의 가치, 노동의 가치,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무의미한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을 탈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기다림의 교육,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을 꾀하여야 합니다. 학습 부진의 문제보다 자신의 미래에 더 무관심 한 것에 먼저 주목해야합니다. 인재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전문가로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나 손길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깨우쳐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는 일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모두 참여, ‘배움과 삶’을 연계하여 협력, 배려, 소통,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대비 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며 봉사과 섬김의 자세로 ‘미래혁신 학교’ 구축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내겠습니다.